

〈지난주 말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 빼고 다 합니다.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 오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의 분명한 방향과 이유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맞다면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 숨을 쉬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증인 되기 위해 업이 있는 것이지, 업을 위해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결단을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는구나, 내가 어떤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찾아야 하고 증거를 불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참으로 증인 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일주일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나는 왜 살까? 무엇 때문에 살까? 오늘 숨 끊어지면 끝나는데 나는 왜 살까? 정말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오들이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고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날마다 의식하는 것입니다. 왜 안되느냐 했을 때 그 답은 의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가도 내가 증인이라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일하면서도 잃어버리고, 그냥 과거에 내게 형성된 체질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의식해라.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호흡을 의식해라.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의미와 이유를 찾아라. 왜 살아야 하고 왜 직장을 갑니까? 왜 밥을 먹고 왜 돈을 벙니까? 이 시간에 잠자지 피곤한 몸 이끌고 왜 교회 옵니까? 우리 같이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같이 살고 싶은데 왜 자꾸만 같이 안 살려고 해요? 몸만 있는 게 같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소통하고 함께 그 부분을 가지고 배려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말을 하면서 가는 것이잖아요.

▶의식을 안하고 기도가 됩니까? 의식을 안하고 진짜 호흡이 됩니까? 내 삶을 놓고 진짜 이유를 찾는 의식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괜히 목사의 소리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대로가 맞습니까?

▶우리는 성도인데 어떤 성도입니까? 기도가 반드시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성도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진짜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살지 마시고 진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길래 이렇게 사냐, 했을 때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지속하는 영적 상태, 그것은 날마다 의식하는 것입니다.

〈서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결과가 뭐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자와 찍히지 않은 자입니다. 이게 오늘 결과물입니다. 사실 오늘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이거 안 봐도 됩니다. 이건 다가을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가을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인이 쳐졌느냐 안 쳐졌느냐 하는 결과물입니다.

▶어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인이 쳐졌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목사님, 저는 아직 아닙니다. 하는 사람입니까? 계시록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래가 어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나를 찾으면 미래는 거기에 따라 보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내 현장에 인치심을 받지 못한 영혼을 보고 아무 애통함이 없다면 그건 내가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인치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제 인격상 표현이 이정도 밖에 안돼요.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가 받는 고통을 알면서도 내가 인침을 받았다 하면서도 현장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없다? 그건 내가 가짜라는 소리입니다.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라니까요.

▶이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경각심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경각심, 그걸 피할 수 있는 길. 먼저 여러분이 이 답을 내놓고 가셔야 합니다. 답을 내놓고 나면 다 지나갈 일이에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사람은 비참합니다.

〈본론〉

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계9: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섯째 천사가 무저갱, 우리가 아는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계9:2)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무저갱이 열려버리면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계9:3)

황충이 나왔어요. 이 황충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갈의 권세는 고통의 권세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계9:4)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이 무저갱이 열렸을 때 황충을 통해서 고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 받지 못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황충의 공격대상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전달하고 살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자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쓸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계9:5)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다섯 달 동안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만 골라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전갈에 쏘여 봤습니까? 전갈에게 쏘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고통이 상상초월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견디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계9:6)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고 싶은데 죽음이 피해 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인침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미래를 아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렵니까?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그거 알아보면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문제가 됩니까? 직장에서 그게 문제가 되면 직장을 다니지 마세요. 밥 먹으려고 직장 다니는 게 아닙니다. 밥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결단 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황충들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고통과 재앙, 저주 가운데서 보장된 사람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졌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양심에게 호소합니다. 이대로 살지 마세요. 사니까 사는 것처럼 살면 안되는 것입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결단해서 지속한 게 있어요? 그만큼 내 영적 상태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지속을 못하는 상태라는 걸 알면서 그렇게 두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계9:7-10)

이게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의 모습입니다. 연상이 됩니까? 다섯 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계9:11)

황충에게 왕이 있다고 합니다. 무저갱에서 나오는 흑암이 이 황충들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저갱이 열렸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계9:12)

다섯째까지 갔는데 아직도 나팔이 두번 남아 있습니다.

2.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계9:13-14)

여섯째 나팔에는 드디어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움직입니다. 여기선 누가 살아남겠어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계9:15)

계시록에서도 죽음이 연월일시를 따져서 찾아옵니다. 이 말은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주팔자가 들어갑니다.

▶마병대의 수는 이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계9:16-17)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만 마리의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다섯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구인의 1/3이 죽어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계9:18-20)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계9:20)

이 재앙을 받고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는데도 회개하지 않

는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삽니다. 삼분의 일이 저주와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여도, 이 때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으니까 우상숭배를 합니다.

▶마지막 때 인간의 모습은 회인맞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이 간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돈 벌어서? 성공해서?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는 게 오히려 좋아요. 마지막 때까지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일찍일찍 죽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말세까지 살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나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건 여러분이 알아요.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미래 죽어가는 저 영혼에 저 주 재앙 받은 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가짜입니다.

▶내 사명, 내 미션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왜 이 시간에 살아 있습니까? 오늘 답을 내셔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으로 사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정하고 계획하고 할지라도, 그게 아닐 때는 접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기준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사역으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결론〉

▶다섯째, 여섯째 천사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맞다면 미래 걱정 마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은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00번 잘해주다가 한번 잘못한 거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서운해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니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 삼분의 일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영적 상태를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로 회복하지 않으면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 미래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입니다. 미래는 오늘입니다. 이 응답의 축복을 이번 한주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